

Hallyu! 한류! ▶▶ 입장권 \$7 할인, ▶▶
 ▶▶ The Korean Wave ▶▶ 프로모션 코드 HALLYU7KP ▶▶
 ▶▶ 를 사용하세요

MFA Boston Created by the V&A - touring the world. V&A
 Sponsored by HYUNDAI
 ▶ 전시기간 3/24-7/28 ▶ 티켓 및 행사일정은 mfa.org ▶

Vol. 20 No. 963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June 28 2024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arapark@ownnewengland.com
 C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절반의 미국 전기차 소유주, 다음에는 "개스차"

전기차 구입 후회? 차에 대한 불만보다는 충전시설 불만
 전기차에 대한 호감은 여전, 매년 구입의사 비율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생 각보다 많은 수의 미국 전기차 소유주들이 차 구입을 후회하며 다음 차는 다시 내연기관차 (ICE)를 구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조사됐 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다음 차로 전기차를 선택하겠다는 소비자 비율은 여전히 높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킨지앤코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소 유주 절반 가까운 46%가 다음에는 전기차 대 신 ICE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꺾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그 러나 다른 조사들은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나와 상충되는 면도 있다.

매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기차 자체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 단 13% 만 전기차 자체에 불만을 표시했을 뿐이다. 예 상했듯이 최대의 적은 충전에 대한 불편함과 높은 차값이었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응답자의 35%는 충전시설의 부족을 전기차 구 입을 후회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비 슷한 수치의 응답자들도 전기차 가격이 ICE차 에 비해 비싸다는 반응이었다. 약 30%의 전기 차 소유주들은 많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필요한 장거리 여행에 불편하다고 답했다. 25%는 집 에서 충전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매킨지는 세계 3만7천명 ▶▶13면으로 계속



미국내 전기차 판매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운전자 46%가 다음 차는 내연기관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매킨지의 조사가 나왔다. 그러나 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기차보다는 전기차 인프라에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THE PRO 수잔리 부동산
 REALTY GROUP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특별한 보상. 전문적인 권리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웃사이드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권유
 * 포지티브 어플리케이션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통, 우번 시장과 함께 6.25 참전용사 묘비 태극기 달기 행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문수)가 6월 22일 우번(Woburn, MA)시 소재 우드브룩 묘지(Woodbrook Cemetery)에서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보스톤 평통 위원, 보스톤 한미 노인회(회장 한순용), 상록회, 보스톤 지역 한인들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

석해 참전용사들의 묘비에 태극기를 달아 추모했다. 평통의 이 행사는 지난 2020년 이래 5년째 개최되어 온 행사다.

올해의 태극기 달기 행사에는 우번시 시장 마이클 P. 칸캐넌(Michael P. Concannon)과 베테랑 담당 디렉터인 밥 데이비스(Bob Davis)와 다수의 선출직 우번시의원들도 참석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 생존자인 93세의 도미니 네글

리(Domenic Negri)씨가 아들 딸과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한국전에 대한 회상을 나누며 태극기 달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한문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분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참전용사 묘비 국기 달기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이며 평통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응원하며 감사한다.” 는 김재휘 보스톤 총영사의 메시지도 대신 전했다.

칸캐넌 우번시 시장은 “주말의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국기달기를 위해 참석해 주어 고맙다. 나의 아버지 제임스 칸캐넌도 한국전 참전용사이며 이곳에 잠들어 있어서 더욱 감사하며 의미가 크다.” 고 하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또한 밥 데이비스 베테랑 담당 디렉터는 “한국전에서 약 37,000명의 미군 사망자, 92,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며 “사라졌지만 잊혀지지 않는 한국전 베테랑들에 대한 한국



평통이 22일 우번시 우드브룩 묘지에서 태극기 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문수 평통회장이 우번의 칸캐넌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시장 부친의 묘지에 태극기를 달고 있다

인들이 관심과 존경의 표시에 고맙다.” 고 전했다.

올해 국기달기 행사에 참석한 세계적 북한 전문학자인 윌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의 이성윤 전 텡스대 교수는 “북한은 지구상에 하나뿐인 억압과 배고픔, 질병 속에 허덕이며 기본적인 인권도 박탈당한 나라” 라며 북한 실상을 설명한 뒤 “앞으로 또다른 70주년을 향해 나가는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올해 행사 준비위원장 박찬모 위원은 유창한 영어로 행사를 부드럽

게 진행하였으며, 함께 해준 평통 위원들과 한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경해 전 시민협회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이 훌륭한 일을 잘 하셔서 경의를 표한다.” 며 축하인사를 전해 왔다.

참석자들은 평통에서 준비한 태극기를 한국전 참전 용사 묘비에 꽂았으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번 로컬 신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재를 나와 행사에 관심을 보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SPICE 50116-77340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유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유람건강검진 ◆

시선 장비, 컬러티, 경진방독, 서이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우' 프로그램입니다.

*'불법진 상진 - 폐렴 - 결장염 - 소화기관종양조각 및 항암제 드레싱 등'

☑ 유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1. 이학적검사(심폐계측, 비염도, 시력, 안압, 흉압)
2. 동맥검사(순환성질환 검사)
3.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 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호흡기-RAV, EKG, 노박성폐질환)
6. 오십사
7. 목지상검사
8. 복부/과경사시자재청부한, 유방독수촬영
9. 소변검사(수면 유해성검사)
10. 핵분초음파영상(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11. 분진 및 건조의 상진

유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5만원** -

·간담회 - [1]분, 동맥검사,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뇨기검사
·대변분석 - [1]분, 갑상선초음파, 자궁내막, 동맥경화, 골밀도, 비뇨기검사

유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면 **65만원** -

·유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검사(수면 + 호흡기검사)

유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면 **120만원** -

·유람 숙박종합검진 + MRA, PET-CT

유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7일전 당일 오전 검사 시점 **437만원** -

·유람 VIP종합검진 + PET-CT(간담회영양검사), 비뇨기검사, 전립선초음파, 자궁내막초음파검사 + 2일간 특별이비시비검사(가능)

유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위급 및 최첨단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육서역))
서울무민방병원(가양역)

H+엘지병원(신원역)
세란병원(북동문역)

※ 유람을 통한 예약 시 예약비용도 특별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약 기간은 평일에 예약 가능한 일요일 및 휴일 및 서이스를 포함합니다.

617.949.1766

주소: 210-3499-4040(D: Innamkorea)
이메일: hyeram@hyeram.com
홈페이지: www.hyeram.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진심 담은 첼로 음악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시 찾은 문태국 첼로 독주회에 한인들 심쿵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처음으로 한국인 연주자들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중후반이었다. 1965년 피아니스트 한동일은 레벤트리트 콩쿨에서 우승을 거두며 한국인 최초의 국제 콩쿨 우승자가 되었다. 2년 뒤인 1967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같은 대회에서 우승하여 또 한 번 온 국민에게 놀라움과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1974년에는 피아니스트 정명훈이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 2위를, 그리고 1976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약 6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금호문화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 25개의 국제 콩쿨에서 입상한 한국인 연주자의 수는 예년보다 많은 무려 37명이다. K-팝이 전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K-클래식 연주자들도 세계 음악 무대의 전면에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몇몇 연주자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첼리스트 문태국(30)도 이러한 새로운 연주자 세대 중 한 명이다. 파블로 카잘스 국제 콩쿨 우승, 앙드레 나바라 국제 콩쿨 우승, 야노스 슈타커 어워드 수상,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 입상, 퀸 엘리자베스 콩쿨 파이널리스트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는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유튜브 등의 매체에

많은 연주 동영상과 인터뷰 영상 등이 올라와 있는 연주자이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지난 6월 22일(토)에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윌리엄스 홀에서 주최한 이번 독주회에서 그는 포레, 슈만, 윤이상, 멘델스존의 곡들을 연주했다. 전체적으로 탄탄한 기본기,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한 보잉에서 나오는 고급진 소리, 긴 호흡의 프레이징, 서정적인 라인과 카리스마 있는 엔딩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슈만의 <환상소곡집, Op. 73>과 멘델스존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에서는 그의 음악이 마치 물을 만난 고기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며 관객들에게 다가왔고, 윤이상의 곡 <노래>에서는 농현이나 슬라이드와 같은 한국 음악적 요소와 현대 음악적 요소가 예술적이고 완성도 있게 표현됐다.

이 날의 프로그램은 첼리스트 못지 않게 피아니스트의 역량과 기량이 요구되는 곡들이었다.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풀타임 오페라 코치인 피아니스트 이지영은 각 부분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섬세하게 받쳐주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곡의 흐름을 이끌며 멋진 앙상블과 탄탄한 음악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곡의 마지막 악장에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뽐내며 온 몸으로 연주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탄성이 터졌으며 관객들은 뜨거운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문태국은 다시 무대로 돌아와 자신이 대학 시절을 보낸 장소에 오랜만에 돌아온 소감과 한미예술협회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앙코르 곡으로 멘델스존의 <무언가 Song without Words>를 우아하게 연주하며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한 관객은 “테크닉도 좋고 악기 소리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 하는 연주이지만, 무엇보다 ‘진심’ 이 느껴지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문태국의 음악이 정말 특별하다. 표현하기 힘들고 왜 그런 것인지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의 첼로와 음악에서는 깊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라고 평하면서 감동을 전했다.

또 다른 관객은 “방금 끝났지만 다시 듣고

싶다. 요즘 젊은 첼리스트들 중 최고라는 평을 들었는데, 그 말이 과하지 않다 생각되었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직접 연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곧 다시 있기를 바란다.” 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김재휘 총영사 부부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많은 한인들과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미국인 관객들이 함께 했다.

문태국 씨의 데뷔 앨범 <첼로의 노래 Songs of the Cello>는 2019년에 워너 뮤직에서 발매되었으며, 올해 10월에는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녹음한 음반이 출시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NE 28th - JULY 4th, 2024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40 years Since 198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WISHING YOU A GREAT 4TH OF JULY!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바베큐 파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COOL AS A COLD CUCUMBER SOUP H 마트에서 소개하는 초간단 오이냉국 레시피로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내세요!
Light, savory, and tangy, Cold Cucumber Soup is a popular Korean appetizer you'll want to chill with all summer.

Sweet Potato 고구마 10 LB/BOX \$17.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Sand Pear 샌드 배 LB \$2.9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Red Cherry 레드 체리 LB \$4.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inger 생강 LB \$2.99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EA \$5.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99 FOR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8.99
Fresh Beef Short Ribs 생소 LA 갈비 LA STYLE/LB \$15.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3.49
Fresh Chicken Wing 생 닭 날개 LB \$3.49	Frozen Smoked Duck 냉동 훈제오리 SLICED/LB \$19.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5.99	SUHYUP Frozen Yellowtail 수협 방어 LB \$1.99
TONGTONGBAY Jiri Anchovy (Small) 통통배 어린이용 지리멸치 PRODUCT OF KOREA 8 OZ/PKG \$7.99	Frozen King Crab Legs 킹크랩 다리 450 UP/LB \$19.99
TONGTONGBAY Dried Dasi Anchovy 통통배 다시 멸치 PRODUCT OF KOREA 1 LB/PKG \$10.99	Frozen Kingfish 킹피쉬 LB \$6.99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 \$12.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4.99
CHUNG JUNGONE Luncheon Meat 청정원 런치미트 12 OZ \$3.99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CHOCO CHURROS 19.76 OZ (7 EA/BOX) \$10.99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BOWLS/PKG \$11.99	KWANGCHEON Kakao Friends Ryan Crispy Seaweed + Shopping Bag 광천 카카오프렌즈 재래김 (장바구니 포함) 0.17 OZ X 27 EA + BAG/PKG \$12.99	HAIO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1.1 LB \$2.99	HAIO Dumplings 해오름 만두 KIMCHI/VEGETABLE/FRIED 2.65 LB \$6.99	MARUCHAN Mama Yaki-soba Stir Fry Noodles with Seasoning Sauce Base 마루찬 야끼소바 16.93 OZ \$3.99
PULMUONE Cold Noodles with Broth 풀무원 평양 물냉면 34.9 OZ \$4.99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SWEET CORN 2.82 OZ X 7 EA/BOX \$10.99	ORION Marine Boy Snack 오리온 꼬래밥 21.16 OZ (15 EA/BOX) \$10.99	HAITAI Homerun Ball Snack 해태 홈런볼 14.6 OZ (9 EA/BOX) \$12.99	HAIO Yuzu Tea with Honey 해오름 꿀 유자차 2.2 LB \$5.99
HAIO Banana/Strawberry/Coffee Flavored Milk Drink 해오름 바나나/딸기/커피 우유 6.4 FL OZ X 6 EA/PKG \$4.99	WOONGJIN Morning Rice Drink 웅진 아침햇살 50.72 FL OZ \$3.99	BBQ Plate 야외용 바베큐 삼단 접시 3 PCS SET \$7.99 \$5.99	LACENA Griddle 라체나 그리들 40 CM(XL) \$42.99 \$29.99 EA	HELLO! Vinyl Gloves 헬로! 비닐 위생장갑 100 PCS/PKG \$2.49 \$1.99

TOBAGI SAME GREAT TASTE, NEW LOOK!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1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행운의 1달러 지폐, 최고 15만달러 가치 지녀

달러받으면 반드시 실과 일련번호 확인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1달러 지폐가 거액의 황재를 안기는 행운의 지폐로 둔갑했다. 앞으로 1달러 지폐를 받게 되면 반드시 지폐의 조폐연도와 일련번호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웰시니클닷컴(wealthenickel.com)에 따르면 화폐 수집가들은 미 조폐국의 인쇄 실수로 발생한 1달러 지폐 한쌍에 최대 15만달러까지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국은 2014년 11월 워싱턴DC의 인쇄소에 일군의 달러를 인쇄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6년 7월 똑같은 일련번호로 된 일군의 달러를 달라스 포스위스 인쇄소에 인쇄하도록 했다. 이 같은 중복된 요청으로 같은 일련번호를 가진 1달러 지폐가 탄생

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폐는 하나의 일련번호만 가지게 되지만, 이 같은 인쇄 오류로 인해 6백 40만장의 쌍둥이 일련번호 지폐가 만들어졌다. 웰시니클닷컴은 지금까지 37개의 쌍둥이 지폐만 발견됐다고 전했다.

수집가들은 이 희귀한 한쌍의 지폐에 충분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화폐의 보관상태 그리고 일련번호에 따라 \$20,000에서 \$150,000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달러 지폐를 갖게 되면 다음 3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조지 워싱턴 사진 옆에 위치한 지폐 시리즈가 반드시 Series 2013이어야 한다.

일련번호 위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실이 "B" 여야 한다.

일련번호가 반드시 (*)로 끝나야 하며 일련번호는 B00000001* - B00250000* 또는 B03200001* - B09600000*여야 한다.

일단 위의 3가지를 만족하는 행운의 1달러를 발견했다면 이젠 쌍둥이 달러를 찾을 단계다. 프로젝트 2013B(Project 2013B)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매칭되는 달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프로젝트 2013B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36,000여 장의 행운의 반쪽 쌍둥이 달러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만약 매칭되는 달러가 발견되면 연락을 받게 된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일단 그 과정 이전에 앞으로 1달러를 받으면 반드시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한다.

프로젝트 2013B: <https://project2013b.blogspot.com/2021/10/welcome.html>



세계선교다리공동체 한인 성당서 기금 모금 콘서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세계선교다리공동체 (Bridge Mission International)는 6월 30일 일요일 오후 1시, 뉴튼에 위치한 성안투안 다블뤼 보스톤한인성당에서 드림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모금 콘서트를 개최한다.

드림 프로젝트는 우간다, 케냐, 필리핀, 아이티, 네팔, 인도 등에 거주하는 고아와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바리톤 최준한, 소프라노 한지희, 테너 임민선씨와 피아니스트 오미경, 피아니스트, 안가영, 바이올리니

스트 임소담, 첼리스트 권현지씨가 참여해 공연을 선사한다.

콘서트는 현악 3중주, 성악, 오페라 곡 등의 프로그램과 크리스배 신부의 클라리넷 연주로 구성되어 있다. 연주회는 무료이며 원하는 경우 기부가 가능하다.

세계선교다리공동체(BMI)는 선교지역에 영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의 공동체로 미래의 선교사들을 배출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콘서트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미셸 서(bmiconcert1@gmail.com)씨에게 할 수 있다.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ebong@bostonpremierrealty.com</p>	 <p>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cov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ong@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크리스틴슨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ristina@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i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폴리진 978.454.2043 jinh@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파 617.447.055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유 617.780.7833 peter.y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헤 978.866.3248 jinahe@bostonpremierrealty.com	 여현주 401.535.3387 ye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638.5787 sara.yu@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강수준 617.638.6973 kangsojun@bostonpremierrealty.com	 마세웅 213.563.0997 ma.seung@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헤 413.507.1402 mikihe@bostonpremierrealty.com	 선재해 617.913.3588 sunjaeh@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677.9387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송 781.800.3412 yiyoung@bostonpremierrealty.com	 곽복숙 781.898.1214 kwaksuk@bostonpremierrealty.com	 지현경 617.510.1182 jihyeon@bostonpremierrealty.com	 이곤 617.643.8723 egon@bostonpremierrealty.com	 헤온기 604.611.0182 heong@bostonpremierrealty.com
 Tommy Woolfolk 617.274.5610 to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2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Mian Yu 617.933.2713 m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8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ang 248.448.0117 luj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638.960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23.103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508.873.8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6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3.28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38.828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반문희 박 291.448.8589 moon@bostonpremierrealty.com	 재이그 김 781.596.0409 reagr@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0434 is@bostonpremierrealty.com	 Nini Bolanger 413.237.1886 nini@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성황리에 종료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기조강연, 설민석 강사 전체 강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70여개 강연으로 교사들 재충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이하 나스)는 “한국학교가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창의교육”의 주제로 제 4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비대면 줌 및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진행했다.

미국 전역의 14개 지역의 한국학교 교사들은 물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러시아, 캐나다, 중남미, 일본과 카자흐스탄까지 모두 35개 나라에 위치한 한글학교들과 세계 한글학교협의회가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손민호 총회장 대행이 이끄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0개 지역 협의회 회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나스 각 사업을 담당했고 개최지역인 동중부 협의회 소속 교사는 물론 워싱턴협의회 및 다른 지역협의회 교사들이 도우미로 참여했다.

목요일의 집중 연수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 첫날에는 한국국립국어원의 K-teacher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 이승연 교수가 ‘한국어 교육에 관한 내용과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는 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필라델피아 행사장에 직접 참여한 각 지역협의회 회장들과 손민호 총회장 대행 및 동중부 협의회 교사들이 서재필 기념재단을 방문해 재단을 둘러보고 앞으로 나스와 연계한 사업 및 협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날에는 한국 역사강연의 최고봉인 설민석 강사를 초대해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이라는 주제의 전체강의를 들었다. 설 강사는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이란 제목의 강의를 통해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강조했다. 설민석 강사는 “한국학교 선생님은 21세기 세종대왕”이라며 모든 교사들을 격려했다.

설민석 강사는 나스 소속 강사들을 위해 특별히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K-culstory>)을 만들어 발표하는 등 앞으로 한국학교 교사들과 소통하기 위한 동영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도울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 날 기조강연은 백세시대의 아이콘인 김형석 교수를 초대해 “1백년 이상을 살아온 인생의 경험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지혜가 담긴 해안을 들었다.

김형석 교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강조했으며, 백년이 넘는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교사들이 시간도 잊은 채 집중하게 만들었다.

21일과 22일은 한국어 교육으로 유명한 한국의 및 미국의 교수진들과 각 지역의 한국학교를 대표하는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70여 개의 강연이 진행됐다. 뉴잉글랜드협의회에서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104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좌)와 설민석 역사 강사, 나스의 기조강연과 전체강연을 맡았다



이정설 교사(인공지능-능력있는 한국학교 교사의 동반자), 홍순주 교사(아이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 박현아 교사(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위한 접근법), 이보람 교사(한국학교에서 재미있구나!), 김한길 교사(한국학교의 교육적 의미)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 강의에 참여한 다수의 강사들은 NAKS의 발전을 돕고자 강의료를 후원하기도 했고, 시차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시간에 최선을 다해 강의에 임했다.

2세들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지역 한글학교의 나아갈 방향 및 준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김봉섭 교수, 강용진 이사, 남일 교장, 그리고 2세 졸업생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한국학교가 처한 현실과 대안,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수지 오 교수가 리드하여 진행된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서는 교사의 역량 개발을 이끌어내 <차세대 정체성 교육>이라는 나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장기근속교사 표창 순서에

서는 30년을 근속한 톨리도 한국학교 강용진 교사가 대표로 수상했다. 개교 50년이 된 하와이 한인사회학교에는 개교 50주년 기념 상패가 수여됐다. ‘한국어 학습활동 수업 경시대회’에서는 중서부협의회 강주현 교사가 “김구 선생과 함께 떠나는 나를 찾는 여행”으로 최우수상,

뉴잉글랜드협의회 이보람 교사가 “이중모음 ‘나, 니’ 단어와 연결어 (접속조사) ‘와, 과’ 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중남부협의회 최경주 교사가 “저학년 초등학생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부채춤”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 1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서 한예린 학생 미주 대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6월 22일 개최한 제 1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대표 한예린 학생(뉴잉글랜드한국학교 10학년)이 대상을 수상했다.



미주 10개 지역협의회에서 지역경선을 통해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겨룬 이번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는 북가주 지역협의회 대표 구한별 학생이 금상을 차지했다. 중서부, 남서부, 동중부, 플로리다, 콜

로라도, 미시간, 하와이, 중남부협의회 소속 대표 학생들에게는 은상이 수여됐다. 수상한 모든 학생들은 상장과 함께 장학금, 기념 티셔츠를 받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NE 27th - JULY 4th, 2024

paldo
Bibimmen
Mixed Noodles
팔도 비빔면 4+1



2\$7 4.59 OZ X (4+1 EA)/PKG
LIMIT 2
 FOR ~~REG. \$5.99/PKG~~

Cimilax Daily
Mixing Bowl



한국산 씨밀렉스 데일리 믹싱볼

GRAY(SMALL/1.5 L)/EA

PINK(LARGE/4 L)/ EA

~~REG. 3.49~~
\$1.69

~~REG. 4.99~~
\$2.4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하버드 학생들이 진행하는 무료 대입설명회

7월 13일 동부시간 오후 9시부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하버드 한인학생회(Harvard Korean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이하 한인 학생회)가 자신들의 하버드 입학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입설명회를 7월 13일 동부시간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서부 6시-7시반)까지 줌(Zoom)으로 진행한다. 한국시간으로는 일요일 14일 오

전 10시부터 11시 30분이다. 하버드 한인학생회의 황정호 회장은 “우리가 대학입시를 준비했을 때 이런 대입 강연회가 필요했었고, 이로 인해 (한인학생)후배들이 많아지면 좋기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고 말했다. 또한 한인들의 기부를 받아 한인 학생회 운영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기 위

해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행사는 무료이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을 요청하는 항목이 있다.

설명회는 전반부 45분간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커먼앱(Common App) 작성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각종 상장, 액티비티, 추가정보, 이력서 등의 섹션을 작성하는 방법, 자신의 성과, 성격, 등을 잘 표현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하버드 학생들이 작성한 샘플을 예로 공개하기도 한다.

후반부는 에세이(Essay) 작성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된다. 여기서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개인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법,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구성하는 전략 등을 설명한다. 또한 하버드 학생의 에세이 샘플을 통해 구체적인 에세이 작성의 예를 직접 접할 수 있다.

하버드 학생회 측은 고등학생(9-12학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학부모 또는 다른 관심 있는 한인들도 참가 가능하다. 특히 설명회가 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입시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미리 등록해야 하며, 학생회 측은 등록한 한인들과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줌미팅 주소를 발송한다.

한인 학생회 황 회장은 “이번 대입설명회를 통해 반응이 좋고 기금모음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경우 정례적으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참가등록: <https://bit.ly/kisalec-ture>



낙스 총회 후 함께 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장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손민호 총회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북가주협의회 손민호씨 총회장으로 선출

추성희 총회장과 양분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법정 싸움 앞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손민호 총회장 대행이 이끄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이하 낙스)가 6월 22일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손민호 대행을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현재 양분화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중 손민호 총회장 대행이 이끄는 낙스는 미국내 총 14개 지역 협의회 중 10개 지역 협의회 회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줌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총 9명의 회원교 대표 중 7명이 손민호 총회장 선출에 찬성했다. 20대 김선미 전 총회장으로부터 낙스 깃발을 전달받은 22대 손민호 총회장은 2026년까지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손민호 총회장의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새로운 홈페이지(www.naksusa.org)를 개설, 공개하고 소속된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한편, 미주 한국일보 19일 보도에 따르면 21대 추성희 총회장이 이끄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6월 11일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에 손민호 총회장과 이기훈 이사장을 상대로 자격무효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낙스 이사회는 2월 28일 제67차 이사회를 열어 추성희 전 총회장과 박종권 전 이사장에 대한 제명 투표를 실시해 추성희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의 제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추성희 총회장이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면서 10개 협의회 중심으로 손민호 대행체제가 출범해 낙스는 양분화됐다. 추 총회장의 낙스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별도의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낙스의 분규로 인해 재외동포청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를 분규단체로 지정, 정부지원을 일절 중단한 상태다.

HARVARD KISA'S college app LECTURE SERIES

JULY 13 2024
9 PM - 10:30 PM EST

Join us for a **FREE** workshop series hosted by current Harvard students, designed to equip high school students with essential skills for success in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Limited spots available.**

RSVP: <https://bit.ly/kisalec-ture>

harvardkisa@gmail.com | <https://harvardkisa.com/> | #kisa_official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MA주 부동산 양도세는 빠지고 ADU는 포함되고

매사추세츠 상원 52억달러 주택 채권 법안 24일 발표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은 52억달러 규모의 주택채권법안을 24일 발표하면서, 하원과 마찬가지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부동산 양도세 항목을 탈락시켰다. 그러나 추가주거공간(ADU)은 법안에 포함시켜 사실상 ADU가 허용됐음을 암시했다.

이번 주택채권 법안은 매사추세츠의 주택 부족에 대응해 다양한 주택 관련 내용을 허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는 2030년까지 20만 호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나, 이번에 상원이 발표한 법안은 약 4만여 호 주택만 신규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주택위의 리더인 에드워드 의장은 "이 같은 주택문제를 한꺼번에 고칠 수 없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까다로운 zoning 규정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십년간 방치해왔던 것을 갑자기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상원 안은 논란이 많은 주택 양도세를 제외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하원과 달리하고 있다. 상원의 법안 규모는 하원의 62억달러에 비해 10억달러가 적다.

큰 차이는 수자원공사 시설의 확장 여부다. 하원 안은 주내 60여개 시와 타운에 매사추세츠수자원공사(Massachusetts Water Resources Authority)의 수도물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10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론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맑은 수도물의 공급 부족은 많은 타운에서 주택 건축에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MWRA의 확장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부동산 양도세의 누락은 부동산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매사추세츠 집소유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터보스턴 부동산국은 메일, 텍스트 그리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번 양도세가 새로운 형태의 세금이며 소비자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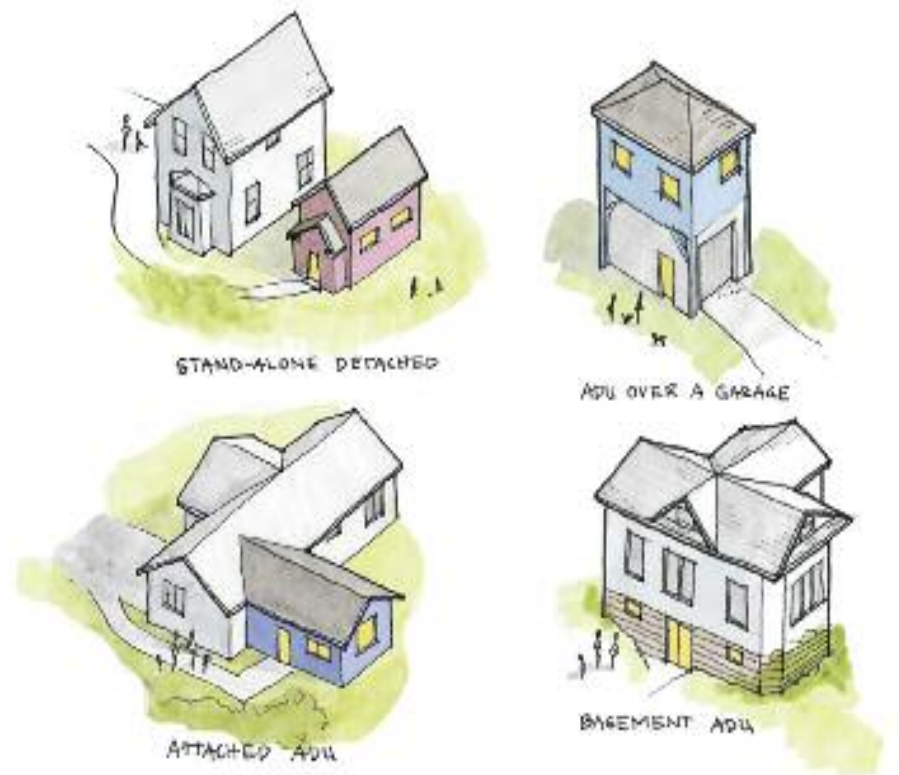
모라 힐리 주정부가 제안한 양도세는 상당히 급진적이다. 각 지자체가 1백만달러 이상 또는 카운티의 주택판매 중간 가격 이상의 주택 판매에 대해서 0.5%에서 2%까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레이터 보스턴지역의 경우 주택 중간 가격이 거의 1백만달러에 가깝고 주택가격이 저렴한 타운의 경우 중간값 이상의 주택 판매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매사추세츠 주택 보유자 절반 정도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반발은 거의 불 보듯 뻔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의 안은 비교적 소수의 주택 판매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보스턴 시의회가 승인한 안은 2백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만 2%의 양도세를 부과하며 첫번째 2백만 달러 주택 판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스턴 외에도 양도세를 추진하고 있는 시와 타운은 다수다. 서머빌, 콩코드, 브루클라인을 비롯한 다수의 타운이 이를 추진 중이다.

한편, 상원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시니어들을 위한 어포터블하우징에 집중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투자를 권장하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반면 혼합된 소득층을 위한 프로젝트는 2억5천만달러를 배정한 하원과 달리 5천만달러로 대폭 축소했다.

새로운 다가구주택 zoning 인센티브 펀드와 새로운 zoning(안도 포함)되어 있다. 시와 타운이 과반의 찬성만으로도 새로운 다가구 주택 건축시 일정 비율의 어포터블하우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신규 zoning 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원은 힐리 주지사 하원의 법안을 수용해 뒷채 건축으로 불리는

ADU(Accessary Dwelling Unit)를 허용하도록 했다. ADU 법안은 모두가 찬성해 향후 매사추세츠에서 ADU 허용이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이번 법안에서 주택구입 보조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보조에 수백만달러를 책정했던 것과 사뭇 다른 접근이다. 어포터블하우징 활동가들은 "첫주택구입 보조의 축소는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상하원 지도부는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타협을 거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절반의 미국 전기차 소유주, 다음에는 "개스차"

▶▶1면에 이어서

의 전기차 및 ICE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미국에서는 4천100명의 운전자에게 설문했다. 전체 전기차 운전자의 29%는 다음 차 구입시 ICE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내연기관차 운전자의 38%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세계적으로 18%의 응답자들이 다음차로 전기차를 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2021년 14%, 2022년 16%보다 2% 증가한 수치다. 매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추세는 점차 전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전 세계 응답자의 21%는 전기차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보다 3% 하락했으나 2022년과 동일한 수치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CDK글로벌이 300명의 EV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3%가 다시 전기차를 구입할 것

이라고 답했다. 전기차 시장을 집계하고 있는 리서치 기관인 리커런트(Recurrent)도 이와 유사한 비율의 선호도를 보였다. 250명의 전기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8%가 5점 만점에 5점을 부여했고 20%가 4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광범위한 조사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매킨지의 조사는 좀더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미국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킨지 조사는 주요 시사점을 제시한다. 콕스 오토모티브(Cox Automotive)에 따르면 2024년 1사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는 전 분기 대비 15.3% 감소했다. 2020년 이래 보이는 첫 번째 감소세다.

미국 전기차 수요 감소는 테슬라의 판매 부진에 기여한다. 테슬라는 그동안 수요부진에 대응해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으나 이는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 중고차의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부정적 효과를 산출했다. 이에 더해 렌터카 회사 허르츠

(Hertz)가 2만여대의 중고차를 시장에 내놓고, 트레이드인이 증가하면서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은 곤두박질을 쳤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수요 감소에 대해 자율주행 택시 등 FSD로 대변된 자율주행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매킨지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아직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운전자들은 자율주행이 결코 차구입의 주요 요소가 아니라고 답했다. 48%는 구입시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답했고, 43%는 마지막에 고려하는 요소, 단 9%만 주요 구입 이유라고 밝혔다.

더구나 11%의 미국 운전자들만 당장 완전 자율주행차를 정부가 합법화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48%는 향후 몇 년후 승인에 찬성하며, 41%는 결코 자율주행 허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ditor@bostonkorea.com



법원 '40조원대' 美 크레딧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 제동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 맺은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카드사와 카드가맹점 측간 이뤄진 카드 수수료 관련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양측은 비자와 마스터가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나아가 가맹점은 비자·마스터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수수료가 300억달러(약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

산한 바 있다. 미국 내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통상 2% 안팎이다.

같은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서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은 고객에게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돼왔다.

가맹점 업계는 이 같은 금지 규정이 평균 수수료율을 높여온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해왔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돼왔으며, 업계 안팎에선 이번 합의로 장기간 분쟁을 끝낼 것이라 기대가 나온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 후 가맹점 단체 중 하나인 상인결제연합의 크리스토퍼 존스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가 카드업계의 반독점 금지 위반 관행을 시정하지 못하고 경제계에 나쁜 거라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음이 인정됐다"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집에서 만나는 대치동 1% 피싱위케어 프로그램
4주안에 센이 술술 풀리는

중1-1 수학 완성

온라인 특강

- 대상: 한국 중학 1학년 수학 코스를 끝내고 싶은 학생 누구나
- 신청방법: QR 링크에서 신청
- 신청기한: ~2024. 7. 19. (신청 기간 09시~4시)
- 교육 iPad 무료대여 및 배송

100% 무료체험 이벤트

CoachON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New Nest Construction LLC

Residential Construction ranging from small handyman jobs to brand new construction. No job is too small.

Fully Licensed GC and HIC
Licensed Realtor at BA Property and Lifestyle Advisors

Phone:
Thomas 339.227.7797
Ruban 978.908.7390

시청률 부진 CNN, 첫 대선 TV토론 흥행 예고 '약이나 독이나'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박빙 승수로 치러지는 11월 미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27일(현지 시간) 열리는 첫 대선 TV토론에서 주관사인 CNN 방송이 '대박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 행사는 CNN이 황금시간대 시청률이 하락하는 와중에 큰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CNN은 황금 시간대 25~54세 시청사 수가 9만4천명에 불과해 1991년 이후 가장 큰 부진을 겪고 있다.

하지만 대선 토론은 전통적으로 해당 연령대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본다는 점에서 토론 이후 CNN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20~24일 1천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0%가 이번 토론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보거나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토론 후 영상 클립을 보거나 들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CNN은 큰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WSJ는 CNN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1기(2017~2021년) 내내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온 전력을 고려할 때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NN에 대해 거침없이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공화당 주최 만찬 행사에서 이번 토론 공동 진행자인 CNN 간판 앵커 제이크 태퍼를 "가짜뉴스 태퍼"라고 부르며 "그 CNN의 바보를 기억하나"라고 했다.

최근 위스콘신 유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태퍼와 또 다른 공동 진행자 데이나 배시를 언급하며 "(한 명이 아닌) 세 사람과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는 CNN의 프로그램 진행자 케이시 헛트가 트럼프 캠프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과의 인터뷰 도중 레빗 대변인이 태퍼를 반복적으로 비판하자 갑자기 인터뷰를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마크 톰프슨 CNN 최고경영자(CEO)는 몇 시간 후 열린 회의에서 "이번 주 내내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읽는 모든 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고 토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CNN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허위·역지 주장만 늘어놓은 타운홀 행사 방송을 주최했다가 안팎의 비난에 휩싸인 적도 있다. 당시 크리스닉 CEO는 취임 한 달 만에 사퇴했다.

WSJ은 "CNN은 진행자 선정뿐 아니라 청중을 두지 않기로 하고 한

후보가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이크를 끄기로 하는 등 토론 규칙을 제대로 통제했는지 추가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토론 생중계를 동시에 송출하는 다른 방송사들은 CNN의 관련 규정에 대해 "이례적이고 제한적"이라며 CNN에 불만을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NN의 모회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다른 방송사들에 배포한 약관에서 동시 송출을 하는 방송사는 반드시 CNN 로고가 보이는 전체 화면으로 중계해야 하며, 도중에 토론 중계를 끊거나 광고 시간에 분석 방송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다.

다른 방송사들은 토론 프로그램명을 'CNN 대통령 토론회'라고 언급해야 하며, 모든 프로모션과 광고, 편성표에도 'CNN 대통령 토론회 동시 송출'이라고 명기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이날 CNN에 풀취재단의 자리를 토론 스튜디오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CNN은 보안 및 공간 문제를 들어 거절했다.

CNN은 토론 스튜디오에 제한된 스틸 사진기자의 출입만 허용했으며, 다른 800명의 기자들은 스튜디오 건너편의 건물에서 토론을 시청해야 한다.

이번 토론에는 청중이 없고 발언 기회가 없는 후보의 마이크가 꺼지는 탓에 현장에 있지 않으면 마이크가 꺼진 후보의 제스처나 발언을 놓칠 수 있고 이를 CNN 기자들만 볼 수 있다는 점이 경쟁 언론사들의 우려 사항이다.



"트럼프, 7개 경합주 중 5곳 바이든에 우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미국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7곳 중 5곳에서 현직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전국 및 주단위 여론조사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의 투표 결과 등을 토대로 유권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분석한 결과가 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7개 경합주 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에서의 지지율은 초접전이였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두 사람이 동률을 보였고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가 안 되는 적은 격차로 앞섰다.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포인트로 이겼다.

WP는 통상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3.5%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세 곳에서는 누구든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4개 격전지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4~5%포인트로 더 벌어지기는 했지만, 접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포인트 차로 앞섰고,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에서는 5%포인트로 격차를 더 벌렸다.

WP는 다만 여론조사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대선 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전까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를 꼽았다.

WP는 과거 선거 결과를 보면 경제가 개선되면 현직 대통령이 우세했고, 경제가 나빠지면 도전자가 승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일 전에 경제가 개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6%포인트 차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경제가 나빠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미만으로 앞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성 안토인 디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깝게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살빼는 약' 열풍에 미국 내 요거트 매출 증가

다논, 저칼로리 요거트 수요 늘어...네슬레는 특화제품군 출시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국에서 위고비, 오젠퍍 등이 비만 치료제로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내 요거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식품업체 다논은 최근 미국에서 고단백 저칼로리 요거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위고비, 젠포운드 등 비만치료제 열풍에 일부 기인한다고 밝혔다.

다논의 유르겐 에세르 재무담당 부사장은 "자사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요거트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며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혹은 체중이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말했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적은 식사로도 오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다논은 비만 치료제 치료를 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매출 변화가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국적 식품기업 네슬레도 비만치

료제 치료 소비자를 겨냥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내놓고 있다.

네슬레는 오젠퍍이나 위고비를 투약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새로운 식품 라인 '바이탈 퍼슈트'(Vital Pursuit)를 출시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현재 GLP-1을 투약하는 미국인은 약 3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식품 섭취량을 줄이고 식단을 바꾸는 등 많은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소매 및 외식업계 등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pan@yna.co.kr

"집사기 어렵고 가족 부양 힘들어" ... 美 20대도 고통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의 20대들 역시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과 가정을 꾸리는데 따른 현실적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국 CBS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지난 17~24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2천460명(18~29세 743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세 이하 응답자의 82%가 이전 세대보다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가족 부양이 어려워졌다는 응답도 30세 이하 유권자의 76%에 달했고, 70%는 좋은 일 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일부 지표 호전에도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문제가 주요한 화두로 부상한 상황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로 동결, 2001년 이후 최고 수준 유지를 결정했다.

각각 81세와 78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논란과 관련해선 절반 넘는 청년 유권자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평가했다.

특히 30세 이하 응답자의 68%가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54%가 영향이 있다고 확인했다.

또 절반 가까운 48%의 청년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젊은층의 우려와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30세 이하 투표 의향층에서 지지율만 놓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61%를 기록, 트럼프 전 대통령(38%)을 크게 앞섰다.

이는 2020년 대선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이 방송은 평가했다.

한편 전체 세대를 놓고 볼 때 투표에 참여할 의향은 고령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65세 이상 등록 유권자의 94%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8~29세는 적극 투표층은 66%에 불과했다.

45~64세는 응답자의 80%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30~44세는 76%로 집계됐다.

CBS는 "전통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은 고령 유권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왔다"며 "이는 현재 청년층에 한정된 고유한 특성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Store for sale

Charleys Philly steak sandwich

장소 :보스톤 큰 물에 위치
매매 가격 \$500,000.00
Profit:2년안에 투자금 회수
스토어 리스 9년 가맹점 계약 10년
Owner 69세 은퇴

연락처 : 781.778.8665 미국,
416.817.0888 토론토
이메일 : ppr149@gmail.com

Realtor 사절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95) 연일 최고의 주식시장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미국 주식시장이 기업의 수익과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올해 15% 상승과 함께 연일 최고가를 31번째 경신하고 있다. 지난 3월 칼럼에 '주식시장 최고점과 예측' 에서 다음을 인용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상승 랠리가 한계점에 임박했다는 경고음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크레이그 존슨 파이퍼 샌들러 수석 전략가는 증시가 중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며 S&P 500 지수의 10% 조정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칼럼에서 '주식시장 폭락을 준비하거나 폭락을 예측해서 투자하면 주식시장 폭락 자체로 잃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손실한다.' 고 피델리티 금융회사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Peter Lynch)의 충고를 인용하며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최근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검토해 보자

. 2024년 주식시장 상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최근의 회의에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투표했는데, 이는 최근의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의 충분한 개선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은행이 금리 인하를 의결한 점을 감안하면 연준 역시 금리 인하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 보일 때도 한 번의 이벤트로 인해 투자 심리가 뒤집히고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중간에 10% 이상 하락을 경험한 적이 16번이었지만, 연말에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예를 들면 2003년 중간에 14% 하락하기도 했지만, 연말에 26% 상승으로 마감했다. 참고로 2020년 34% 하락 경험 그러나 16% 상승 마감 그리고 2023에도 10% 하락을 경험했지만 24% 상승으로 마감했다.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연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주(6/14) 골드만삭스는 5200

에서 5600으로, 투자자문사인 에버코어ISI는 4750에서 6000으로 전망치를 상향했다. 시티그룹도 5100에서 5600으로 전망치를 높였다. 연초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관측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인공지능 기술주를 필두로 한 대형 기술주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리라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예상보다 견고한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 전망 등이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다.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비싼 값에 투자하는 것 같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인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폭락하면 무서워서 투자하지 못한다. 그리고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이 뜻은 물건값이 비싸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과 같다. 이래저래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기도 하고 크게 폭락하기도 한다. 그러나 1945년 이후 경제 침

체기(20% 이상 하락)를 12번 경험하지만, 그중 9번은 12개월 후 모두 회복했다. 일년 이상 침체기도 18개월 후에는 모두 회복했다.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과거 주식시장 역사가 큰 흐름은 보여준다.

1929년부터 약세장과 강세장이 27번 있었다. 주식시장의 평균 약세장은 약 9.5개월(286일)이지만, 강세장은 약 3.5배인 1,011일 동안이나 지속했다. 여기에 13개의 강세장은 주식시장 94년 동안 가장 긴 약세장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은 한 걸음 후퇴하고 두 걸음 전진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어떤 한 해에 10%, 15%, 그리고 20% 상승했다면 그다음 10년간 주식시장 각각 173% 상승, 234% 상승, 그리고 188%로 더욱 상승했다. 주식시장의 성공은 장기투자이며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주식시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3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용준은 자신을 위하여 가산을 모두 털어서 호위무사들도 세우고 낭정(郞政)의 제반 비용도 충당해준 대남보에게 너무나 무심했음을 자책했다. 그의 딸이 자신을 사모하여 유화가 되기도 거절하며 기다렸어도 신선골(新善骨)의 형성을 염려하여 첩으로 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녀가 우물에 몸을 던진다는 자살 소동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첩으로 삼았다. 그와 동시에 당장 대남보를 남두에서 해임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풍월주 김용준이 남보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근처에서 아이들이 "처를 바쳐 부자가 되고 일곱 아들 모두 말을 탄다네, 딸을 바쳐 가난해지고 세 아들 모두 벼슬을 입었네" 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 또한 남보의 집에서는 그의 처와 세 아들이 삼을 쌓아 놓고 손으로 껌질을 벗기고 있었다. 이 두 광경을 목격한 김용준은 종자들에게 진작 바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을 크게 책망하였다. 그제야 종자들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의미를 말하기를 "처를 미생에게 바친 당두(唐斗)의 일곱 아들은 모두 영달했는데, 딸을 공에게 바친 남보(男甫)의 세 아들은 모두가 천한 까닭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 용준은 종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잘못 크다고 한동안 자책하다가 남보의 장남 학열을 승부(乘府)에 천거하여 오지(烏知)(17관등 중 13등급은 사지(舍知), 15등급은 대

오(大烏) 또는 대(大烏) 16등급은 소(小烏) 또는 소(小烏)인데 정확한 등급은 알 수 없다. 다만 15등급이나 16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의 관직을 받게 하였다.

또한 김용준은 603년 풍월주의 위를 김호림에게 물려주면서 나머지 두 아들도 부탁하였다. 14세 풍월주가 된 호림은 세 아들 모두 나중에 낭두로 등용하였다. 풍월주의 자리를 김호림에게 물려준 용준은 9세 풍월주를 지낸 비보랑과 함께 진평왕이 친정하는 '漢水の 전쟁' 에 출정하였다. 그때 대남보도 함께 출정하였다. 한수의 전쟁은 북한산성 전투인데 현재의 서울의 북부 북한산성이 아니고 광진구의 아차산성이다.

603년 8월 고구려 영양왕이 고승(高勝)을 보내 북한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신라의 진평왕은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출정하여 방어에 성공하였다. 이후에도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당시에 형성된 국경선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대남보에게 는 대(大)(10등급)의 벼슬이 내려졌으나 받지 않았다.

아차산성은 삼국사기와 광개토태왕릉비에 아단성(阿檀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면서 이름을 '단트' 으로 개명하였기에 아단성의 '단' 은 자형이 비슷한 '차' 로 고쳐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현존하는 아차산성은 1973년 사적 제234

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진평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적자가 없었다. 다만 딸만 둘(또는 셋, 넷 - 삼국사기에는 천명과 선덕의 기록이, 삼국유사에는 선화가 더해 있고, 화랑세기에는 천화도 등장한다)이 있었다. 신라에서도 싣다르타(가우타마)가 태어나길 염원하는 뜻에서 왕실에서는 동륜태자의 장남의 이름을 백정(슈도다나)으로, 차남과 삼남의 이름은 국반과 백반, 즉 부처의 아버지와 숙부들의 이름과 동일하게 하고, 진평왕(백정)의 왕후 복희(구도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마야왕후로 하였지만, 애석하게도 신라에서는 석가가 태어나지 않았고, 진평왕과 마야왕후는 딸만 낳았다. 그래서 진평왕은 폐위된 숙부 진지왕의 장남 용수를 사위로 삼아(천명의 남편) 왕위를 이으려고 하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용수와 용준이 동일 인물로 등장하는데, 화랑세기에는 형제, 곧 용수가 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는 다만 화랑세기의 기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풀어 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녀 선덕이 용봉의 자태와 태양의 위용이 있었다. 이에 진평왕은 천명에게 그 지위를 양보하도록 권했고, 효심이 깊었던 천명은 그 지위를 양보하고 출궁을 했다. 선덕은 용준이 능히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사신(私臣)이 되도록 청했고, 진평왕도 공주의 뜻을 받들도록 명하였다. 용준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선덕을 섬겼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 물러날 것

을 청했다. 그러자 진평왕은 용수에게 그 임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용수도 자식을 낳지 못했다. 당시는 이미 마야왕후는 사망하였고 승만왕후가 아들을 낳긴 하였지만 유아사망하였다. 승만왕후는 용수와 용준 형제가 자신이 낳은 아들을 대신하여 차기 왕위를 차지할 것 같아서 그들을 시기질투하고 미워하였다. 그와 중에서 용수는 사망하였고, 죽기전에 용수는 부인 천명과 아들(김춘추)을 동생인 용준에게 맡겼다. 용준은 승만왕후를 피해 변방으로 나가서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결국 승만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차기 왕은 최초의 여왕인 선덕이 632년 제2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선덕여왕은 즉위 후 용준을 지아비로 삼았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서 용준은 물러날 것을 청했다. 그래서 여러 신료들이 '삼서의 제' 를 의논하여 흥반공(興飯公)과 을제공(乙祭公)을 지아비로 삼았지만 여전히 후사를 얻지 못했다. 용준은 아버지 진지왕이 색에 빠져 폐위된 것을 너무나도 슬퍼했고, 자신 또한 색으로 왕에게 아첨하기가 싫어서 물러나와 형의 부인 천명을 처로 삼고 조카 김춘추를 아들로 삼아, 만년에는 산궁에서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서 안락하게 여생을 살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4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300용사 부흥단〉 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6.25 한국전쟁 연합추모행사 대회장 초청 설교

지난 6월 23일 오후 4시 LA에 위치한 주향 교회(담임 김신 목사, 3412W. 4th St)에서 남가주 한인목사회(회장 이현욱 목사)와 남가주 한인여성목사회(회장 서사라 목사) 공동 주관으로 6.25 한국전쟁 제74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번 제74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추모행사 대회장으로 〈300용사 부흥단〉 대표총재 정주갑 목사, 부대회장으로 미스바구국기도운동본부 대표 박영은 목사를 초청했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기에배와 연합추모행사가 진행됐다.

“〈300용사 부흥단〉 대표총재 정주갑 목사의 설교, 출 14:10-14 “우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내 지식 나의 상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은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도 있겠지만, 국가와 국가의 전쟁, 부부끼리의 전쟁, 부모와 자

식과의 전쟁,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전쟁 등. 그러나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거니와,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면 승리하고 내리며 패배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조국을 떠나서 사시는 이민자 분들의 노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분들을 존경을 합니다. 특별히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금심으로 견뎌온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유공자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300용사부흥단〉을 하나님께서 세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

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계 주신 말씀은 미국이 다 죽어가니 미국을 살리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을 잊지 말고 우리 뉴욕에 온 이유와 까닭은 ‘복음의 빛’ 을 갠으러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영적 토양을 갈아엎으라고, 하나님을 그냥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탁해진 영적 토양을 옥토로 만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300용사 부흥단〉을 통해 미국을 다시 갈아엎는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길 기도합니다.”

위트컴여성합창단(지휘/김상기/반주 윤은정)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를 찬양한 후 부대회장 박영은 목사(미스바 구국기도운동본부 대표)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추모사, 올해는 6.25 한국전쟁 발발 제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6.25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3시에 북한은 사전 계획에 따라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

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렵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세계 제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중요한 축을 이뤘던 것은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시작됐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했습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와 남가주 한인여성목사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6.25 한국전쟁 제74주년 상기에배 및 연합추모행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호국영령과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6.25 전쟁의 평화협정, 즉 종전 및 강화 조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통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여름의 향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올여름 광화문 글판이 걸렸단다. 신문에서 읽었는데, 계절이 바뀔적마다 새 글판을 선보인다. 바뀌는 글판을 보는 건 또다른 재미이다. 이번엔 영국 작가의 시중 한 구절이란다. 여름 장미의 향기가 진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영시에 문외한이라 그런가. 한국어 번역이 더 향기롭다.

Your happy laughing face-

Does like a scented Summer rose Make sweet the dullest place.

미소 짓는 너의 얼굴은 여름날 장미꽃처럼 가장 따분한 곳까지 향기롭게 해

미소보다는 밝게 웃는 얼굴이라 바꾸었으면 어떠한가. 여름엔 미소보다는 환하게 웃는 얼굴이

더 그럴듯 할 거라 믿기 때문이다. 요즘 보스톤의 맑은 여름날씨처럼 말이다.

여름날 장미는 진한 자주색이 화려하다. 장미의 향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향내라면 아카시아 꽃이 있다. 향내가 지독하다 싶게 진한데, 이맘때면 어렵지 않게 기억한다.

꽤 오래전 한국에서이다. 우리 집은 이사를 가야 했다. 새집은 아카시아로 담을 둘러친 고등학교

앞이었다. 이삿짐을 나르던 날이 유월초 어둡던 저녁이었는데, 진하다만 쉽게 맡을 수 없었던 향내가 진동했다. 이삿짐 나르는 걸 거들던 내가 궁금했다. 이게 무슨 냄새. 그건 아카시아 꽃향내였고, 나중에 어른들이 알려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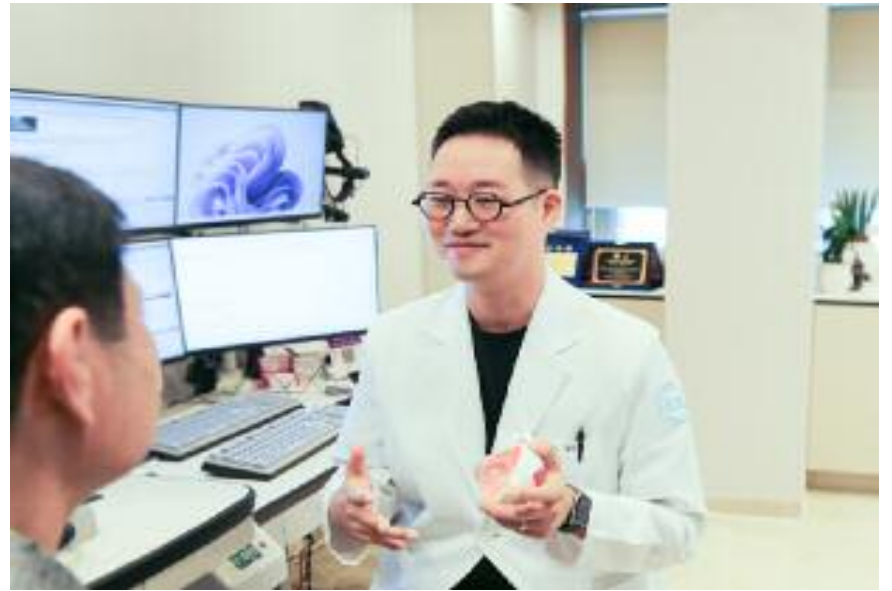
과연 그랬다. 아카시아는 꿀을 머금은 꽃송이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나비는 모르겠다만, 벌들을 제법 몰렸으리라. 짙은 아카시아 향내는 미소를 넘어 환한

웃음처럼 퍼져나갔던 거다. 이삿날 동네 분들이 애어른 모두 나와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왔다. 웃음이 넘쳐 흐르던 정경인데, 따분하기는 커녕 오히려 활기가 넘쳤던 거다. 아카시아 향내 덕이라 여긴다. 보스톤에도 향기로운 여름이 한창이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가 2:13)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병증 무서운 포도막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눈에 결막염이 오래고 낫지 않는다면 합병증 무서운 ‘포도막염’ 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안과센터 강 민재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빠근하게 아픈 눈에 염증이 생긴 신호다. 주로 알려진 눈의 염증성 질환으로는 결막염이 있는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무시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에는 결막염과 증상이 비슷한 포도막염이 있다. 포도막염은 방치하면 꾸준히 재발하고 합병증을 유발해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결막염과 포도막염은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다르다. 결막염은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조직인 투명한 결막에 생긴 염증성 질환이다. 결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눈이 충혈되고 눈물 증가,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 눈은 몇 겹의 막으로 둘러싸인 구조다. 포도막은 안구의 중간에 있는 막으로 홍채, 섬

모체, 맥락막으로 구성돼 있다. 포도막염은 포도막에 발생한 염증을 의미하지만, 인접 조직인 망막, 유리체, 각막의 염증이 동반되고 2차적으로 염증이 퍼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안구 내에 발생하는 염증을 포도막염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유행성 결막염은 눈 이물감, 가려움증, 통증, 충혈 등이 발생한다. 포도막염에서도 통증, 충혈,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물감과 가려움증은 거의 없다. 충혈 양상도 결막염에서는 흰자위 전반에 발생하지만, 포도막염에서는 주로 검은 동자 주변에서 심하게 발생한다.

포도막염의 전형적인 특징으로는 밝은 빛을 받으면 눈이 부시면서 시력이 감소하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다. 두 눈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쪽에만 나타나기도 하며, 염증이 빠르게 악화되는 급성 양상과 천천히 악화되는 만성 양상을 함께 보인다. 일반적으로 결막염에 비해 오래 지속되거나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포도막염의 발생 원인으로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에 의한 감염성 원인과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비감염성 원인이 있다. 심하지 않

은 포도막염은 치료로 나올 수 있지만, 염증이 오래되면 합병증으로 백내장, 유리체 혼탁, 녹내장 등을 초래하게 된다. 더 진행되면 황반부종, 맥락막박리 등 시력 감소가 심해지며 매우 심한 경우에는 시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대부분의 포도막염은 내인성 염증으로 인체의 자가면역반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가면역이란 내 몸의 세포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해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이다. 자가면역에 의한 포도막염은 특별히 다치거나 감염 질환을 앓은 적이 없지만 안구 내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절염, 혈관염 등 다른 염증 질환이 동반되기도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안과센터 강민재 과장은 "포도막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한번 치료하더라도 재발을 겪는 경우가 많다. 증상만으로는 감염성과 비감염성 원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광범위한 안과검사 및 필요시 피검사 등을 포함한 전신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포도막염의 원인이 되는 감염원이 있거나 전신질환이 진단되면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도막염을 앓았던 환자

는 치료하여 가라앉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전신 컨디션의 저하가 있을 때 포도막염 재발이 쉽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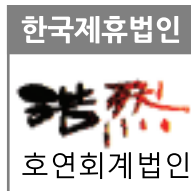
강과장은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면 시야가 뿌옇게 보일 수 있고, 염증이 심해져 망막과 시신경을 침범하면 시력에 영향을 준다"며 "포도막염은 치료 후에도 눈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병증 무서운 포도막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Shaping young minds is like discovering diamonds in the rough

1ST DIAMOND CUP GOLF CHAMPIONSHIP



DIAMOND CUP

GOLF

Monday, 1st. July 2024'
BLUE HILL COUNTRY CLUB
23 PECUNIT STREET
CANTON MA 02021

PRIZE

4 CLOSET TO THE PIN

**EACH WINNER RECIVES 1 CARAT
PREMIUM QUALITY CVD DIAMOND**

*1ST PLACE: \$2000/ TEAM
2ND PLACE: \$1500/ TEAM
3RD PLACE: \$1000/TEAM
LONGEST DRIVE: \$215
LUNCH, DINNER AND AFTER PARTY WITH DI*

CHAMPIONSHIP TYPE

*TYPE: 4 PERSON SCRAMBLE
PARTICIPANT: 144
REQUIREMENT: 18+ MALE/
FEMALE GHIN NOT REQUIRED*



REGISTER NOW

US FUTURE LEADERSHIP FOUNDATION

www.usfutureleadership.org

Registration: formfacade.com/sm/tu4ab5NGY